

지역 소식통

고창군, 은퇴예정 공무원
귀농귀촌 과정 현장교육

고창군이 지난 11일 은퇴예정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맞춤형 현장교육'을 진행했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주관, 공무원 은퇴 이후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귀농귀촌 정책 설명 및 정보를 제공하는 현장교육으로 진행됐다.

고창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강의와 체류형센터 견학을 시작으로, 귀농 블루베리 농가 방문을 통한 귀농귀촌 경험 사례 정취 영농조합법인 토굴밭보 방문을 통한 고추장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성공적인 귀농귀촌에 대한 조언을 듣고 농촌생활을 미리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지며 고창군에서의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을 통해 은퇴 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경험 제공됐으며 고창으로의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동기를 부여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자살예방의 날 맞아
생명존중 숲 행사 진행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민의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자살예방주간에 상동 어울림 숲 일대에서 생명존중 숲 행사를 진행한다.

자살예방주간은 자살예방의 날인 9월 10일부터 일주일간 이어진다.

행사 주요 프로그램은 생명지킴이 교육, 생명존중 등 만들기, 관찰기 편지쓰기, 인증샷 이벤트 참여 등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전화(☎535-2101), 현장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16일에는 생명존중 숲 경관물 제작식과 마음치유 버스킹 어울림 숲 신채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순희경 보건소장은 "정읍시민의 생명존중에 대한 관심, 우울증 및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지속적이고 효과성 있는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공동체, 도시재생을 더하다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 등 5개 단체, 프리마켓 상호협력 협약식 가져

정읍시는 지난 8일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에서 공동체와 도시재생이 함께하는 프리마켓 추진을 위해 5개 유관단체와 프리마켓 상호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정읍시지역활성화센터 이봉열 이사장, 정읍신문펜클럽 송원섭 회장, 정읍시공동체협회 조성국 회장, 정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유옥경 이사장, 리본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이재운 이사장 등 5개 단체장이 참석했다.

박창원 지역활성화과장 "프리마켓을 단순한 상거래만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즐거움과 추억을 공유하고 그



공간에서 소통하고 교류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문화로 만들어 가겠다"며 "지역주민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만남의 장을 통해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즐겨찾는 프리마켓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체와 도시재생 프리마켓 사업은 9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정읍역 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로컬JOB센터 '여성 일자리 활성화 협력단' 위촉

다양한 민간 여성 단체장 참여 · 일자리 발굴 협력 기대

부안군로컬JOB센터(센터장 김희진)는 여성 일자리 창출 협력을 위해 지난 11일

부안읍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부안군 여성 일자리 활성화 협력단'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안군 내 다양한 민간 여성단체 대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여성 일자리 활성화 협력단은 부안군 및 부안군로컬JOB센터와 여성 고용인정 및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협력했다.

특히 여성 일자리 활성화 협력단은 부안군 여성에게 지속가능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 간 업무 공유와 지속적인 협의를 약속했다.

군 관계자는 "여성 일자리 활성화 협력단에서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과 안정적인 창출사업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부안군은 지역경제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출산가정에 축하박스 전달

고창군보건소가 지난 11일 둘째 아이를 출산한 고창읍 출산가정을 방문해 출산 축하 박스를 전달하고 생명탄생을 축하하며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기원했다.

강상훈·은하영씨 부부는 최근 남자 아이를 얻어 1남1녀의 남매를 둔 가정이었다. 건강한 둘째 남매를 출산해 다행이 엄마가 된 은씨는 "출산과 육아는 힘들지만 키우는 아이들을 보면 기쁨과 행복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날 임신출생 축하용품(50만원)과 산후조리비(200만원), 남편을 위한 육아기아드북, 수유패드, 보충영양제 등

축하박스를 전달했다.

고창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출산 장려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정부지원이 아닌 군 자체 예산을 확보했다.

2023년부터 산후조리비(50만원~800만원)를 확대 지원(정액 최대)하고 있으며, 관내 분만산부인과(고창병원) 이용 분만시 분만진료비 전액 지원과 임신출산축하용품(50만원), 산후 건강관리비(20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아이 많이 낳아 키우는 고창군을 만들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으며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출생을 저자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시기에 듣기 힘든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비만 예방 '건강한 돌봄 놀이터'

정읍시보건소, 돌봄 교실 초 1~2학년 대상 총 12주간 진행

정읍시보건소(소장 순희경)가 오는 12월까지 한솔초등학교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비만 예방사업 '건강한 돌봄 놀이터'를 주 1회(총 12회) 운영한다.

'건강한 돌봄 놀이터'는 영양·식생활 체험교육,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 비만도 측정 및 건강 습관 평가가 이뤄지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영양사 및 운동 처방사 등 보건소 전문인력이 학교를 방문해 아동의 집중도를 높이는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되며, 영양교육과 신체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프로그램 시작 전 개별 체성분 분석을 통해 사전·사후 비만도를 측정하고 건강 습관 형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보건소 샘골건강센터 건강생활팀(063-539-6998)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희경 소장은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건강한 돌봄 놀이터를 통해 아동이 미래 영양·생활습관을 개선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문화관광재단, 서울 지하철역 관광 옥외광고

고창문화관광재단(이사장 심덕섭)이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와 함께 11월 14일까지 두 달간 서울 주요 지하철역에서 고창 관광을 홍보하는 옥외광고를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2023 문화유산 미디어 아트·빛·기행'과 '제50회 고창모양상제' 그리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고창군 운곡탐사르습지' 홍보다.

옥외광고는 서울의 주요 환승역인 서울역, 홍대입구역, 교대역의 스크린 도어에서 운영된다. 지하철역 세 곳의 월평균 합산 이용객인 약 2천만명에게 노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광고는 한국관광공사의 강소형 잠재관광지 육성사업 중 하나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운곡탐사르



습지 관광 홍보를 위해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에서 지원한다.

재단 심덕섭 이사장은 "가을은 관광객이 고창을 많이 찾는 시기인 만큼 광고를 통해 한 번 더 고창을 알게 되고 떠올릴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료 건강검진 실시

부안군이 '농어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부안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38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추진하면서 농가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료 건강검진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부안군에서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노동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과 감염병 검사를 진행하여 건강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주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진내용은 △기분검사 5종(혈당, 혈색소, 간 기능, 신장기능, 소변검사) △감염병검사 3종(결핵, B형간염, HIV) 등 다양한 8종의 검진 항목이 제공되며 검사 완료 후 농가주 집을 방문하여 대상에게 핸드폰 번역앱을 통해 결과를 설명해주고 보건기관 연계



등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1 : 1 안내를 하고 있다.

부안군보건소는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료 건강검진을 통해 의료 사각 지대에 놓일 수 있는 단기 입국 계절근로자를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